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이지은1)·정순희2)

I. 서론

한국은 자영업자 560만 명 시대,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다(통계청, 2013). 개업 3년 안에 49% 이상이 폐업한다는 한국 자영업 시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 회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까지 계속해서 자영업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자영업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진 취업불안정 인구의 피난처로서 실업의 완충역할을 하며, 가장 고령에까지 고용유지율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많은 국가에서 자영업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Gu, 2009).

그러나 자영업자는 직업의 특성상 봉급생활자처럼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제상황이나 운영방식 등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언제 사업이 잘못될지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사업 자체가 위험한 투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도 직장인에 비해 소득대비 국민연금 납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만큼 노후준비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³⁾. 즉,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렇다 할 노후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영업자의 노후위험은 이들의 빈곤율 수치를 보면 보다 확인하게 드러난다. 한국노동연구원(2014)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자영업가구(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9%로 전체 가구평균(11.8%)의 두 배에 육박했다. 봉급생활자인 임금근로가구(7.1%)에 비해서는 세배에 가까워 자영업자의 빈곤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과도한 근로시간, 사회지지 기반의 부족 등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승연, 2013; 박미현,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어느 집단보다도 노후준비에 취약한 예비노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노후준비충분성 인식 및 제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년 사이에 자영업에 가장 많이 진입하였으며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녀대학

1)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2)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jsh@ewha.ac.kr)

3)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에 비해 신고된 소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형편없이 낮을 수밖에 없다

4) 통계청(2013)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자영업자 수는 2005년 22.6%에서 2013년 31.1%로 8.5%포인트 증가하

교육시기와 맞물려 있는 연령대로 높은 지출압박 속에서 배우자와의 갈등 등 삶의 수준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는 5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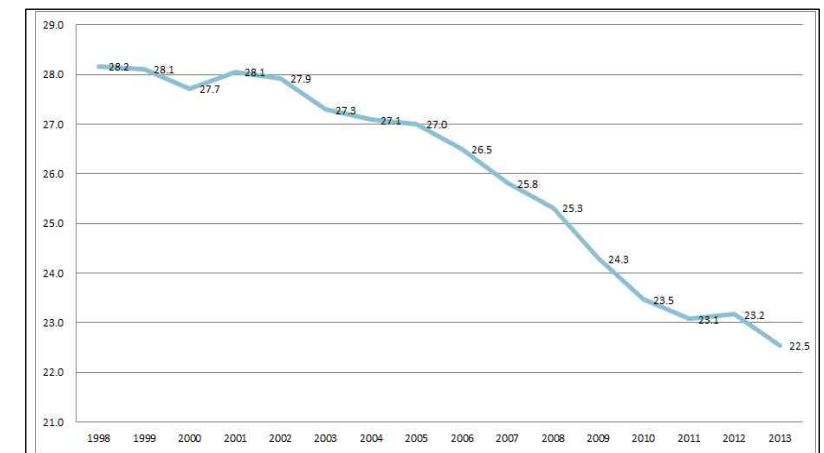
본 연구결과는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제 변수들을 규명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의 삶을 보내야하는 자영업자에게 문제점과 위기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자영업자의 개념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 가족종사자의 도움’을 얻는 자영업자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이승렬, 2009).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3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5% 이다. 이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5%를 차지해 전체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취업자의 27.45%에 달한다(통계청, 2014).



<그림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여 전체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자영업 부문의 규모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 부문의 규모 축소가 너무 급격히 진행된다면 빈곤층 및 신용불량자의 증대, 가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불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임금근로자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급격한 몰락은 국가의 재정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최병호, 2012).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경우 40대와 50대의 진입이 확대되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향후 임금근로 진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들의 부실화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중소기업청의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서(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82.6%를 차지했으며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가 14.3%,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1.3%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0년 대비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율은 2.6% 증가했고 창업을 통한 성공가능성은 2.9% 낮아졌으며 가업승계 비율 또한 0.3% 낮아진 결과이다. 연령별로는 50대(39.1%)가 가장 많았고 40대(30.7%), 60대(17.3%), 30대(11.6%), 20대(1.4%)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이상이 많았으며, 이들은 현재의 생활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래 설계인 은퇴에 대해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

통계청(2013)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조달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 ‘은행 등 대출’ 순이었고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은퇴설계는 부담이 되고 있다(이삼식, 2012). <표 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권자가 소폭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미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화연(2012)의 연구에서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전체	
	가입 및 수급(권)자	미가입자	가입 및 수급(권)자	미가입자	가입 및 수급(권)자	미가입자
2007. 08	72.6	27.4	53.1	46.9	58.0	42.0
2008. 08	77.2	22.8	55.3	44.7	60.8	39.2
2009. 08	78.3	21.7	55.7	44.3	61.6	38.4
2010. 08	80.8	19.2	60.3	39.7	65.7	34.3
2011. 08	80.3	19.7	62.2	37.8	66.9	33.1
2012. 08	81.6	18.4	62.1	37.9	67.3	32.7
2013. 08	80.9	19.1	63.2	36.8	67.9	32.1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상에서의 자료를 통해 살펴 본 바로는 산업이 발달해도 복지체계가 미흡한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금 근로자에 비해 은퇴설계 방법이 부실한 자영업자가 공적연금을 은퇴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하고 있지 못하며, 노후자금으로 쓰일 목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중노년층 자영업자의 은퇴준비가 매우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 부문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관점, 노동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서도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경우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영·신현웅, 2012).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비해 과도한 자영업 부문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추세를 가정하여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의 일부분을 지탱하는 영역으로 자영업을 일정규모 유지해야 한다면,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사회안전망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최병호, 2012).

2.2 은퇴준비관련 선행연구

은퇴준비관련 논문은 베이비붐 세대를 바탕으로 본격화되었으나 자영업자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논문은 거의 없으며, 주로 청장노년층, 직장인, 공무원, 여성 등 비교적 범위의 구분이 명확한 대상으로 노후준비의식과 노후대책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등 많은 연구들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은퇴준비 관련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와 은퇴준비와 주관적 만족도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은퇴준비 관련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준비관련 변수, 심리적 변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가계소득, 학력, 직업 그리고 결혼상태 및 자녀 등이 유의한 변수로 발견되고 있다(이현숙·주소현, 2014). 대체로 연령이 낮고(차경옥 외, 2008; 홍성희·곽인숙, 2007; Li et al., 1996), 여성보다는 남성(이용재, 2013; 홍성희·곽인숙, 2006; Malroux & Xiao, 199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홍성희·곽인숙, 2007; Morgan & Eckert, 2004; Foster, 1996) 은퇴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을 갖고(차경옥 외, 2008; Foster, 1996) 소득이 높을수록(Bae & Jeon, 2004) 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변수로는 노후준비충분성, 은퇴설계에 대한 태도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은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은퇴 후 기대여명까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최현자 외, 2012). 은퇴준비의 적정성은 은퇴 이후의 재정적 자원과 재정적 요구를 비교하는 것이다(여운경, 2007). 선행연구에서 은퇴자산의 충분성은 은퇴자산의 추정과 은퇴 소비수준의 예측, 은퇴자산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문숙재·여운경, 2007; 여운경, 2007; 이지영·최현자, 2009; 최현자 외, 2009).

나해림·최현자(2014)의 연구에서는 은퇴준비행동은 은퇴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 및 투자행동을 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객관적 은퇴준비행동(월 평균 소득 중에서 은퇴를 대비한 금액의 비중)과 주관적 은퇴준비행동(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

는 상태에서부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 계획을 세웠으나 실천 수준이 미흡한 상태, 이미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총 7단계의 은퇴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측정)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 성격적 요인, 하였다. 인지적 요인, 동기적 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인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 연구한 한혜진·정순희(2013)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세 영역에서의 노후준비 충분성을 알아본 결과 세 항목 모두 중간점인 3점을 넘지 못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한 충분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고 하였다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일수록 은퇴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현숙·주소현, 2014; 차경옥 외 2인, 2008; 홍성희·곽인숙, 2007)으로 나타나 은퇴설계에 대한 소비자태도가 은퇴설계 실행 및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행동재무학적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해야 할 것을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 이유로서 태도적 요인을 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김정현·박주영, 2013).

인구통계학적 변수, 은퇴준비변수 등이 은퇴준비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선행연구마다 상반된 연구의 결과가 제시됨으로써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지만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보다 정확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주영·조혜진(2012)은 인간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의해 통제되는지, 타인에 의해 통제되는지에 따른 개인의 신념체계인 통제위치를 변수로 하여 은퇴준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내적통제성향을 가지는 사람이 경제적 은퇴준비를 더 잘 하고 있었고 재무지식과 은퇴준비행동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재정적 은퇴준비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외, 2012; 홍성희·곽인숙, 2006). 배문조·전귀연(2004)은 심리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은퇴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신체적 은퇴준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원·김기승(2012)은 베이비부머세대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진로자기효능감은 경제적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준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태도 또한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이후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재정적 준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외, 2012). 이러한 심리적 변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은퇴설계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생계형, 실업 탈피형으로 자영업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영업의 열악한 특성은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이인숙·배화숙(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재정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한혜진외 2인(2014)의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 실행여부에 따

라 재정만족도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 자영업자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삶의 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여 관련 연구가 미흡하다.

삶의 만족도는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생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권중돈·조주연, 2000; 박미현, 2013 제인용).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동일한 객관적 현실에 놓여있다 하여도 각자가 과거 경험, 현재의 기대와 가치 등에 의해 그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경험되면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정순돌·이현희, 2012).

이러한 점에서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심을 주어야 할 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오유진(2009)의 연구에 의하면, 2004년도 조사시점에서 자영업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연령, 학력, 소득여부, 건강상태, 직장만족도로서 나이가 많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할수록, 현재 직장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직무만족도, 건강상태로 이들 요인들은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김미령(2011)의 연구에서는 결혼한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심리적 건강이 좋을수록, 노후생활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에서 생활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박미현(2013)의 연구결과 중고령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3.45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김미령, 2011; 이인숙·배화숙, 2008; 오유진, 2009) 결과를 보면 고용 없이 혼자서 일을 하는 중고령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고령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직업 만족도로 나타난 연구(김미령, 2011; 이인숙·배화숙, 2008; 오유진, 2009)도 있는데, 이들은 중고령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 연구문제

5) 재정만족도는 경제생활수준, 소비생활수준, 총소득수준, 월저축액, 여유자금, 노후준비금 등 6개 분야에 걸쳐 측정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노후준비인식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제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예비노인 자영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에서 자영업자는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와 자영자이며,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부실 기재되거나 훼손된 설문지를 제외한 218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행연구와 노후준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노후준비 실태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하였다.

3.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 사업소득, 자영업유형,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이 포함되었다.

3.3.2 심리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두 개의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지에 대한 것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자신의 가치, 자질, 능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 만족감 등을 측정)에 해당하는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성공, 자부심, 존경, 유익감, 도덕성 등을 측정)에 해당하는 5문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아존중에 대한 척도는 리커트척도로서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는 Radloff(1977)개발한 20문항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를 번안·수정한 전경구 외 2인(2001)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자영업자 가구에 맞게 보완한 후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으며, 총 11문항인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 범주는 '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의 4점 척도로서 점수 범위는 11점에서 4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3.3 노후준비 충분성

노후준비 충분성은 전체응답자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69.8%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준비의 충분성 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였다. "귀하는 이제까지 노후준비를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한 문항을 통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은 '매우 불충분'이고, 5점은 '매우 충분'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충분성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이종길(1992)이 Diener et al(1985)의 생활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한국어로 번안·수정한 것을 참고로 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기 위한 문항은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대체적으로 나는 내 이상과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삶의 통해 나는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취하였다,'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을 갖고 있다.'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 왔던 대로 살겠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는 .8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IV.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18)

변수	분류	빈도(%)	변수	분류	빈도(%)
성별	남성	133(60.9)	배우자유무	있음	173(79.5)
	여성	85(29.1)		없음	45(20.5)
교육수준	중졸 이하	44(20.0)	건강상태	좋음	87(40.1)
	고졸	98(45.5)		보통	56(25.5)
	대졸 이상	76(35.0)		좋지 않음	75(34.4)

자영업유형	서비스직 판매 기술	53(24.3) 106(48.8) 59(26.9)	월 가구소득 (사업소득 제외)	157.3 만원
			사업소득	189.8 만원

4.2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표 3〉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변수	분류	빈도(%)	평균(표준편차)
자아존중감 (22~37)	평균 초과 평균 이하	96(44.2) 122(55.8)	2.63(.35)
우울감 (23~40)	평균 초과 평균 이하	87(40.1) 131(59.9)	2.67(.29)

자아존중감이 척도의 평균값 이하에 포함된 비중이 약 56%로 나타나 자영업자 2명 중 1명 이상은 자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존경하며 생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우울감의 경우도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우울감 척도의 평균 이상에 포함된 비중이 40%를 넘어서 자영업자 5명 중 2명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적응에 있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4.3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 실태

우리나라의 노후준비는 대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입연금의 3층 구조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여부와 수단 및 충분성 인식에 대한 실태를 보면 기본적인 노후준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표 4〉참조).

조사대상자의 1/3 이상이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하고 있다는 응답자들도 3/5 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적연금을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택한 사람들도 전체의 15%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태로하여 다층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 자영업자에게 개인연금이 아직까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노후준비 충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1%수준에 머물러 10명중 1명만이 현재 시점에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했고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과반수를 넘어 55%에 달하였다.

〈표 4〉 노후준비실태 (N=218)

변수	분류	빈도(%)
노후준비여부	하고 있지 않음 하고 있음	66(30.2) 152(69.8)
주요 노후준비방법	국민연금 예·적금 사적연금 기타	131(60.1)* 57(26.0) 37(17.1) 20(9.1)
노후준비충분성 인식	불충분함 보통 충분함	120(55.1) 74(33.7) 24(11.2)

* 복수응답 산정함.

4.4 부담되는 가계지출비목

조사대상자의 여러 변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조사대상자가 일반적인 가계지출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비목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가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있다. 〈표 5〉를 보면 조사대상자는 노후준비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지출비목에 있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자녀관련 지출인 교육과 결혼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하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 노후준비를 하는 집단보다 모든 지출비목에 있어 부담된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녀교육비와 자녀결혼비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부담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이 하는 집단에 비해 자녀에 대한 기대나 현신이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많을 수도 있고 모든 여건이 노후준비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조사대상자가 부담된다고 평가된 가계지출비목(N= 218)

지출비목	해당 비목이 부담된다는 비율(%)	
	노후준비 하는 집단(n=152)	노후준비 하지 않는 집단(n=66)

자녀교육비	70	88
자녀결혼비	55	75
의식주 생활비	53	57
기타(의료비 등)	48	53

4.5 제 변수들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표 6>에 나타나듯이 3.29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50~74세 사이의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한 박미현(2013)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가 3.45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녀 대학교육 및 결혼 등으로 인해 지출 부담이 가장 심각한 취약 연령층으로서, 이러한 압박요인이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표 6> 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변수		삶의 만족도	
		평균	Duncan
전체		3.29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 대졸	3.17 3.21 2.98	
	F 값	.45	
배우자유무	없음 있음	3.26 3.09	
	t 값	.32	
건강상태	좋지 않음 보통 좋음	2.75 3.01 3.41	c b a
	F 값	8.91***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2.99 3.23 3.31	
	F 값	2.65	
월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2.79	c

자영업유형	2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3.39 3.85	b a
	F 값	12.36***	
	서비스업 판매업 기술업	2.67 3.47 3.12	c a b
자아존중감	F 값	7.64***	
	평균초과 평균이하	3.80 2.89	
	t 값	26.09***	
우울감	평균초과 평균 이하	2.99 3.43	
	t 값	19.70***	
노후준비 충분성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함	2.87 3.49 4.01	c b a
	F 값	28.89***	

4.5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변수, 심리적 변수, 노후준비충분성 인식 변수 등 제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업소득과 자영업 유형 간에만 높은 상관이 나타나 사업소득을 회귀식에서 제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1단계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와 자영업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18%의 설명력을 지녔다. 응답자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집단에 비해 판매직에 종사하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심리적 변수 즉,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39%로 증가하였으며,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후준비충분성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46%로 증가하였으며, 자아존중감($\beta = .37$), 노후준비 충분성($\beta = .28$) 신체적 건강상태($\beta = .13$), 우울감($\beta = -.16$), 자영업유형중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beta = .12$)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수와 노후준비충분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었으

며 이는 가계의 만족도가 객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심리적요소와 인식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정숙, 1995; 한혜진 외 2인, 2014)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표 7> 삶의 만족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218)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β)	B(β)	B(β)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수준	.03(.04) .09(.06)	.01(.02) .14(.10)	.11(.06) .14(.10)
	배우자유무(없음)		.25(.13)* .00(.01)	.24(.13)* .00(.01)
	건강상태	.38(.24)**		
	월가구소득	.00(.02)		
	사업유형(서비스직)			
	판매직	.26(.16)* .05(.04)	.23(.12)* .01(.01)	.23(.12)* .01(.01)
	기술직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24(.35)*** .39(-.25)**	.24(.35)*** -.23(-.16)*
노후준비 충분성				.34(.28)***
상수		2.31	1.31	1.29
R ²		.18	.39	.46
F값		28.41***	30.32***	38.4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예비노인 자영업자는 특히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임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사업, 즉 자영업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등 심리적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발견되어 선행연구들(김미령, 2011; 박미현, 2013; 이인숙·배하숙,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우울감을 해소시키는 서비스를 강화의 필요성

이 부각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감소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준비충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와 관계된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아니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로 발견되어 자영업자의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60%와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선택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50대인 조사대상자 중 30%이상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은 이들의 노후생활 취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는 측면이다. 노후준비여부와 무관하게 많은 조사대상자가 자녀교육 및 결혼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아서 예비노인 자영업자 스스로 자녀교육과 결혼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리한 교육비 지원과 결혼 비용 부담은 50대 자영업자의 노후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지름길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한국적인 의식 속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무한책임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후생활을 고려하여 각자의 역량 속에서 한계를 정하여 지원해주는 결단력이 요구된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장기적으로 자녀에 대한 배려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노후생활의 질을 일정수준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노인인 자영업자는 특히 노후준비를 미루고 여유자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필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취약한 수준으로 앞으로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지와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이 예비노인이 밀집되어 있는 자영업업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고승연, 2013), 본 연구의 대상자가 예비노인으로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로의 이동이 제한적임을 고려한다면 자영업의 평균 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의 지역특성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역밀착형 멘토링 및 컨설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⁶⁾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는 정부지원은 물론 주요기업들의 CSR활동이 연계되어 지원될 경우 보다 효과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고승연(2013),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와 제고방안,”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538**, 1-16..
- 김광석·이준협(2014),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585, 1-19.

6) 이 경우 기업의 CSR활동으로 지역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2014년 10월 S그룹의 경우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세 미만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S그룹의 유통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하여 ; 청년상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유통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김정숙(1996), '제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김정현·박주영(2013), "우리나라 소비자의 은퇴설계실행능력과 영향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117-129.

나혜림·최현자(2013), "자기통제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1), 27-60.

박미현(2013), "중고령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소**, 3(2), 47-63.

신화연(2012),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8-61.

이삼식(2012)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47.

이상영, 신현웅(2012), "자영업자의 건강실태와 의료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1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2-73.

이인숙·배화숙(2008), "고용형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4(2), 53-80.

이지영·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215-230.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준협(2013),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해야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계층하락 심해," **이슈리포트**, 45, 현대경제연구원, 1-12.

이준협(2013),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저소득 자영업자 대책시급, 528, 1-17.

이현숙·주소현(2014),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1-32.

이훈진·원호택(1995), "자기개발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이현숙, 주소현(2014),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1-32.

여윤경(2007),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와 은퇴자산의 적정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논**, 25(2), 59-79.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전검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6(1), 59-77.

전귀연·배문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3-24.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최병호(2012), "자영업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자·김민정·김민정·이지영(2012), "경제수명의 산정을 통한 한국 가계의 은퇴준비도 측정," **Financial Planning Review**, 5(4), 47-62.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13). 사업체 통계.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4), 자영업 실태조사.

한혜진·오은주·정순희(2014), "1인 가구의 주관적 경제인식 및 경제적 노후준비와 재정만족도 관계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173-198.

한혜진·정순희(2014),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2), 35-62.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홍성희·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개인사업자 창업, 폐업특성 및 현황분석.

Choe, H. C., Joo, S. H. J., Kim M, J. & Kim, J. H.(2009) Developing of the Retirement Readiness Indexes of South Kore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0(3), 189-214.

Clark, Rober L., Madeleine, B. D'ambrosio, Ann A. Mcdermed & Kshama Sawant(2003), Financial Education and Retirement Saving. Presented at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Conference Sponsored by the Federal Reserve System, March 27-28.

Diener, E., Emmons, R.A., Larson, R.J., & Griffins,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6.

Foster, A. C.(1996), Employee Participation in Savings and Thrift Plans, *Monthly Labor Review*, March, 17-22.

Gu, Qian (2009), *Self-Employment Among Older Workers: Assistance Programs, Liquidity Constraints and Employment Patterns*, Santa Monica, CA: Pardee Rand Graduate School.

Li, J., Montalto, C. P., & Geistfeld, L., V.(1996) Determinants of Financial Adequacy for Retir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439-486.

Malroux, Y. L., & Xiao, J. J.(1995)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7-24.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ultz P. W.(2002) Knowledge, Information, and Household Recycling Examining the Knowledge Deficit Model of Behavior Change, in *New Tool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Information, and Voluntary Measure-*, Washin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67-82.

